

'여성' 이 아닌 '통치자' 로서 고뇌했던 신라의 여왕들

《우리 역사의 여왕들》 펴낸 조범환씨

역사에는 때로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도 한다. 권력을 쥔 자가 붓을 들고 과거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때론 권력

자마저 역사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우리 역사에 희유(稀有)한 일로 기록된 세명의 여왕들이 그렇다. '감히' 여성의 몸으로 최고통치자가 됐다는 이유로 그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예외적인 존재로 평가받아왔다.

조범환씨(38, 서강대 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첫 책 《우리 역사의 여왕들》(책세상)은 신라시대 선

덕·진덕·진성여왕의 삶과 시대를 증언한다. 일반인들에게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기억되는 여성 통치자들이 이제야 제 목소리를 찾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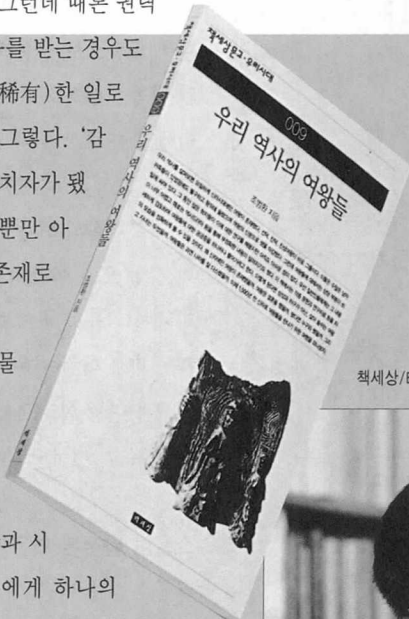
“세명의 여왕은 우리에게 거의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역사 교과서를 통해 겨우 이름 정도만 알려져 있을 뿐이죠. 여자라는 이유로 남성 기록자들에게 왜곡되거나 부당하게 평가받은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곡과 편견 없이 통치자로서 그들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신라의 사회운영 원리 반영된 여왕 통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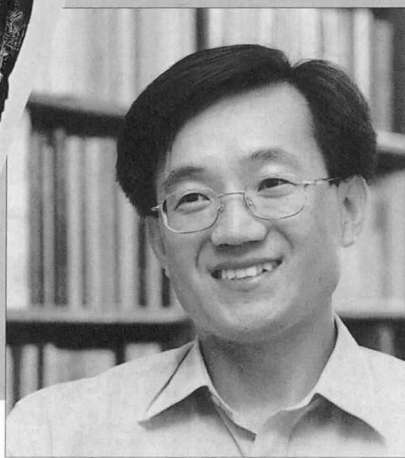
후주를 포함해 130쪽밖에 안되는 얇은 분량이지만, 신라시대 여왕 통치기를 세밀하게 복원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마저 가벼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여왕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조명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 책은 여왕의 왕위계승과 통치, 여왕을 둘러싼 궁금중,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던 이유 등으로 나눠 여왕들의 삶과 시대를 들려준다.

“여왕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통치자와 마찬가지로 당면한 현실문제를 고려하고 국내외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갔습니다.”

세 여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독특한 사회운영 원리와 지리적 조건 때문이



책세상/B6/130면/3900원



조범환씨

었다. 골품제라는 신분제도 속에서 왕위를 계승할 성골 남자가 없었던 것이 여왕 즉위의 사회적 배경이 됐다. 또한 고구려·백제와는 달리 수도를 옮기지 않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여왕 탄생의 한 조건이었다.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은 재위 기간에 불교 세력을 적극 활용해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려 했다. 선덕의 뒤를 이은 진덕여왕은 중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한화정책을 펼치고 관부를 개혁해 왕권강화를 꾀했다. 국운 쇠퇴기에 왕위에 오른 진성여왕은 향가집 《삼대목》을 편찬하고 지방 호족세력과 6두품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진골 귀족의 반대로 실패하고 만다.

“세 여왕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록은 소략한 편입니다. 최근 발견된 《화랑세기》 필사본에 따르면 선덕여왕이 김용수·김용춘 형제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여왕은 삼촌 위홍을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에서 신라시대의 세 여왕들은 왜곡과 편견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 그들은 통치자라기보다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폄하의 대상이었다. 조범환씨는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여왕통치의 공과를 따져볼 때라고 본다. 여왕들은 다른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사회문제를 고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루한 군주들이었다고 강조한다.

정부로 돕니다. 현재의 윤리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신라 왕실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남성 중심 사회에서 폄하된 여왕들

진성여왕을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에서 여왕은 자취를 감춘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신라 여왕들은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해 '여주'(女主)로 폄하당한다. 남성 중심의 사회운영 원리에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여자라는 질곡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세명의 여왕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그들이 국내외의 반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공들여 실현하려 한 통치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조씨는 여왕의 통치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을 뿐이다. 언제나 역사는 새로 씌어지듯이 독자들에게 자신만의 역사를 쓸 여지를 열어놓는 것이다.

조씨는 신라 말 최치원이 찬한 낭혜화상비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한 〈낭혜화상과 성주산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내년에 학위논문이 단행본으로 묶여 나올 예정이다. 신라 하대의 선종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호족세력과 연결됐는지 당대 선승들의 움직임을 통해 밝히기 위해 그는 박물관 한구석에서 사료와 씨름하고 있다.

— 박천홍 기자